지피터스 사례 발표

코딩 모르는 상담 교수가 Claude와 상담소 홈페이지를 만들고, 검색에 뜨게 하기까지

노명숙 · 관계서재 상담연구소

gwangyeseojae.com · 2026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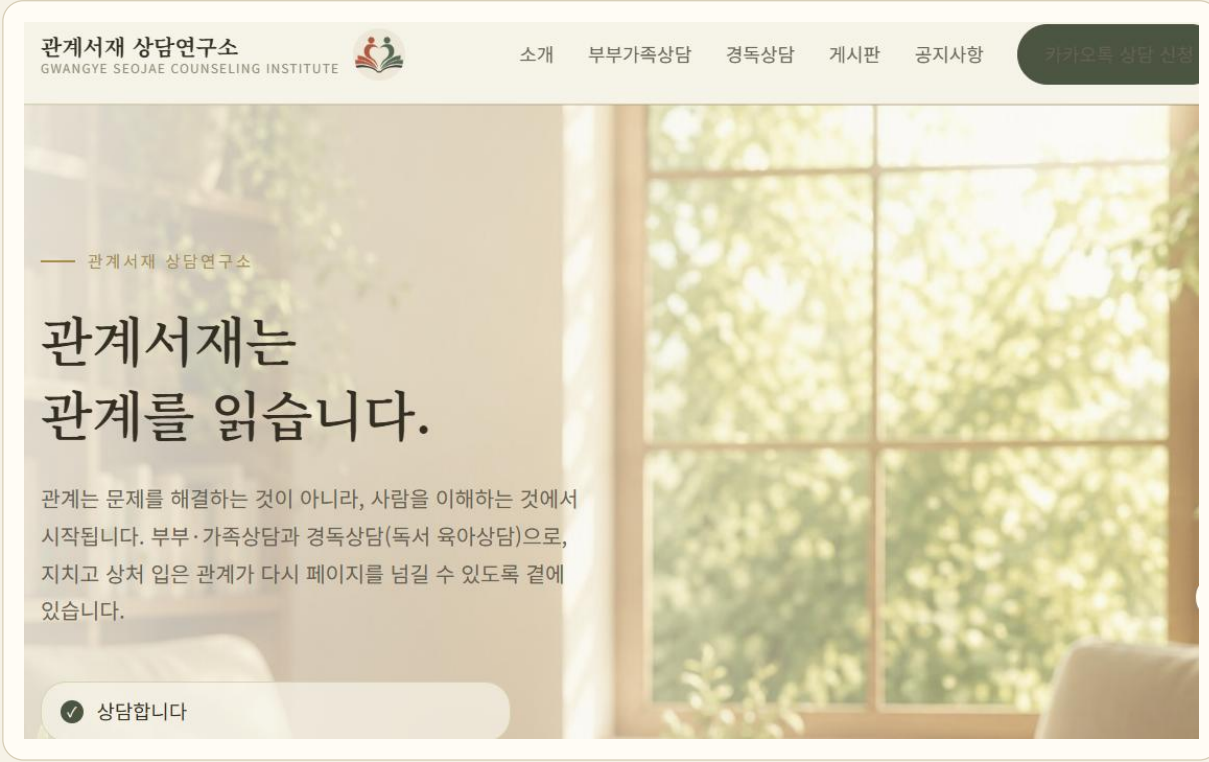
소개

발표자와 홈페이지 소개

1997년부터 상담을 해 온 상담자입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코딩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부가족상담과 경독상담을 소개하고, 특강 공지와 글을 쌓아 둘 상담소 홈페이지가 필요했습니다.



소개

한눈에 보기

기간

두 달 남짓

2026년 7월 26일 도메인 등록부터 10월 초까지

만든 페이지

17개 주소

상담 안내, 블로그 글 5편, 공지 4건, 영상 2개 등

도메인 1년 값

10.46달러

세금 별도.

쓴 도구: Claude, Cloudflare, 구글 서치콘솔,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PageSpeed Insights, GEO LAB

Claude와 홈페이지 뼈대 만들기

저는 말로 설명하고, Claude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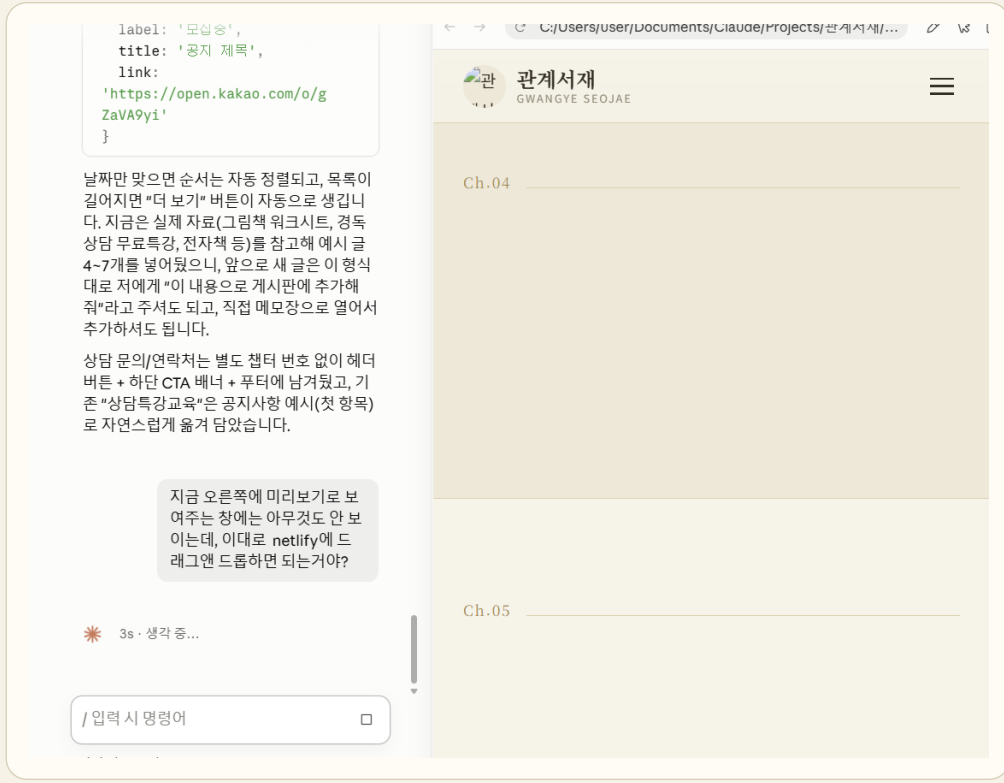
이름처럼 책과 서재. 메뉴도 CH.1, CH.2처럼 책의 장으로 붙였습니다.

색과 글꼴

종이색 바탕에 숲색과 황동색. 제목은 명조, 본문은 고딕입니다.

상담 신청

복잡한 신청서 대신 카카오톡 오픈채팅 버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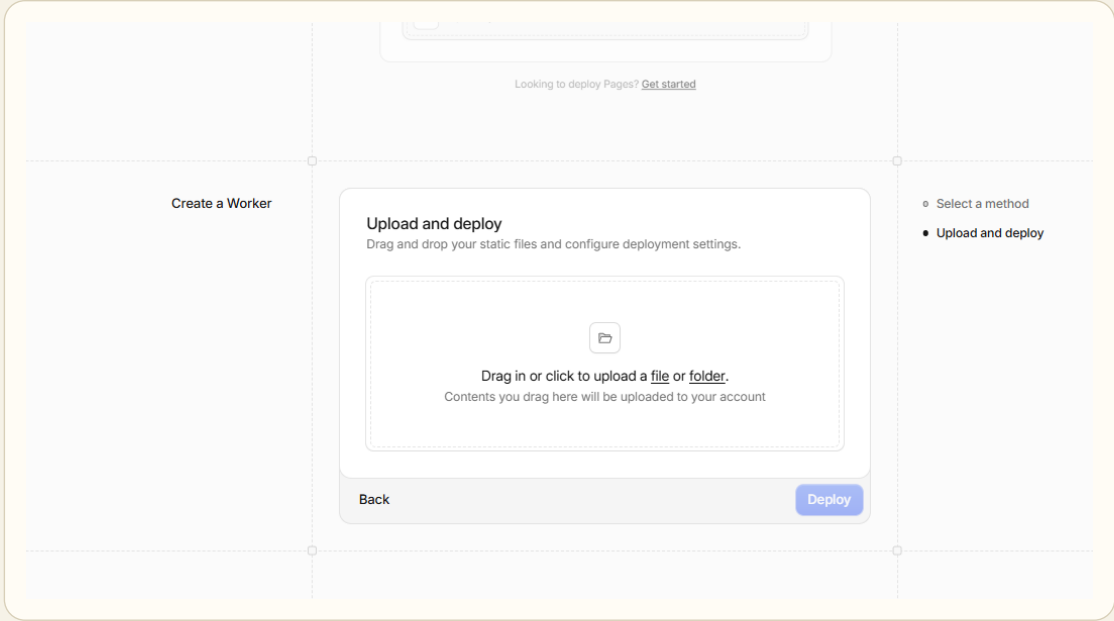
도메인 등록과 Cloudflare 배포

도메인은 인터넷의 집 주소입니다. gwangyeseojae.com을 1년 10.46달러에 등록했습니다.

배포는 내 컴퓨터의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입니다.

1. Cloudflare 화면을 연다.
2. 홈페이지 폴더를 끌어다 놓는다.
3. 배포 버튼을 누른다.

> 폴더 올리기부터 도메인 연결까지 40분 미만



Cloudflare의 올리기 화면. 가운데 네모에 폴더를 끌어다 놓고 Deploy(배포)를 누릅니다.

여기서 알게 된 것

고친 것과 올린 것은 다릅니다.

파일을 고치는 일은 Claude가, 배포 버튼은 제가 누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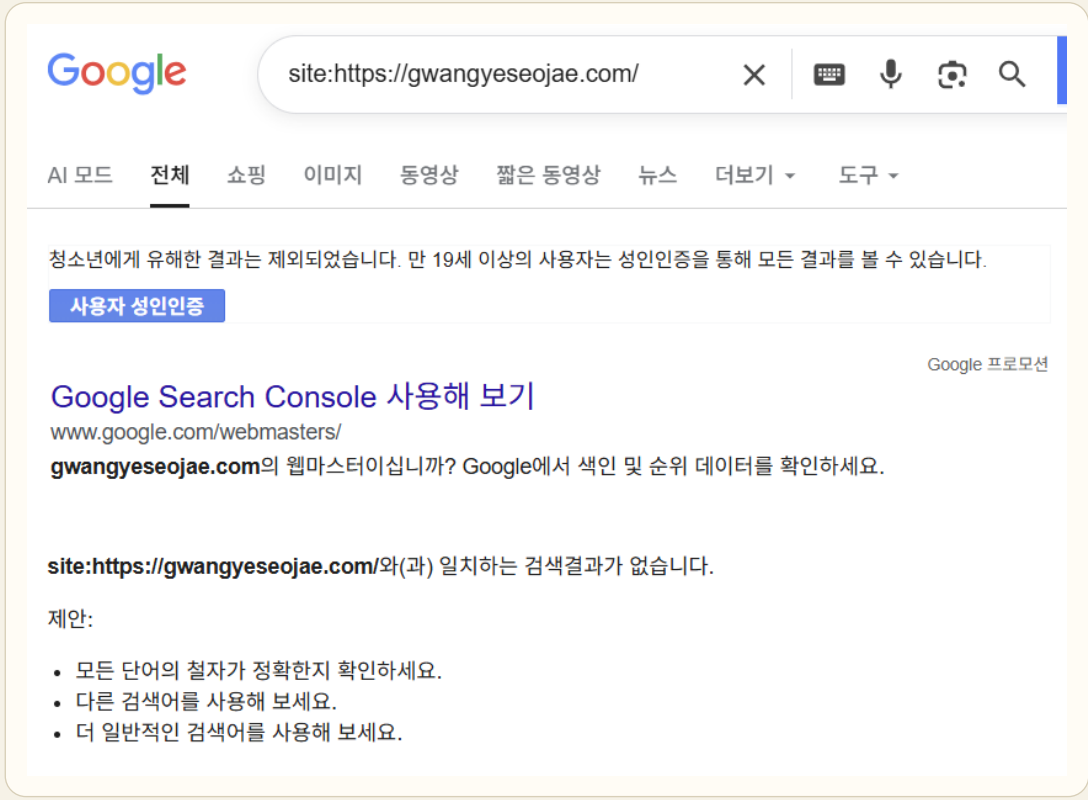
Claude가 내 컴퓨터의 파일을 고쳐도, 배포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실제 홈페이지는 그대로입니다.

올린 날 밤의 검색 결과

검색창에 site:gwangyeseojae.com 을 넣으면, 그 검색엔진이 알고 있는 내 홈페이지의 페이지만 보여 줍니다.

하나도 안 나오면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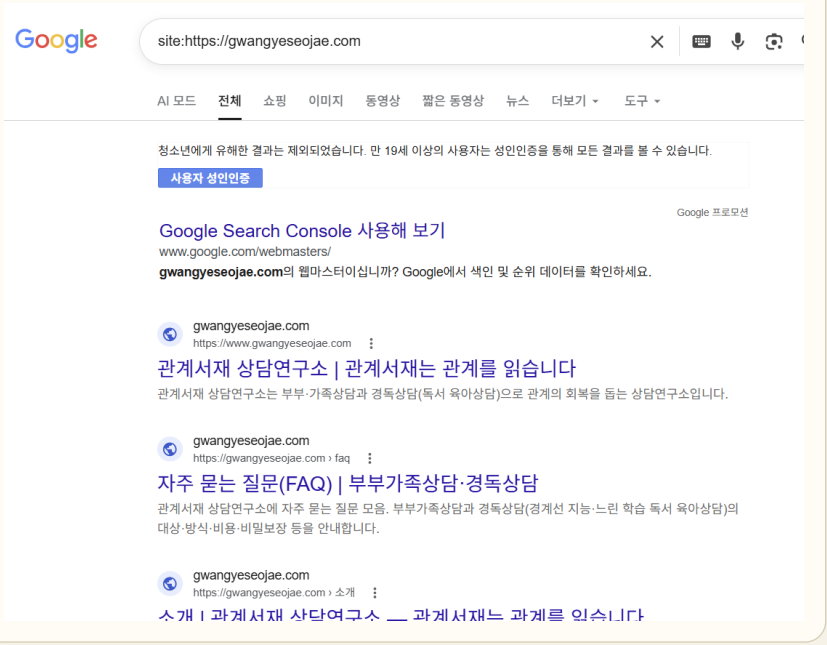
7월 26일 밤, 구글의 답은 "검색결과가 없습니다"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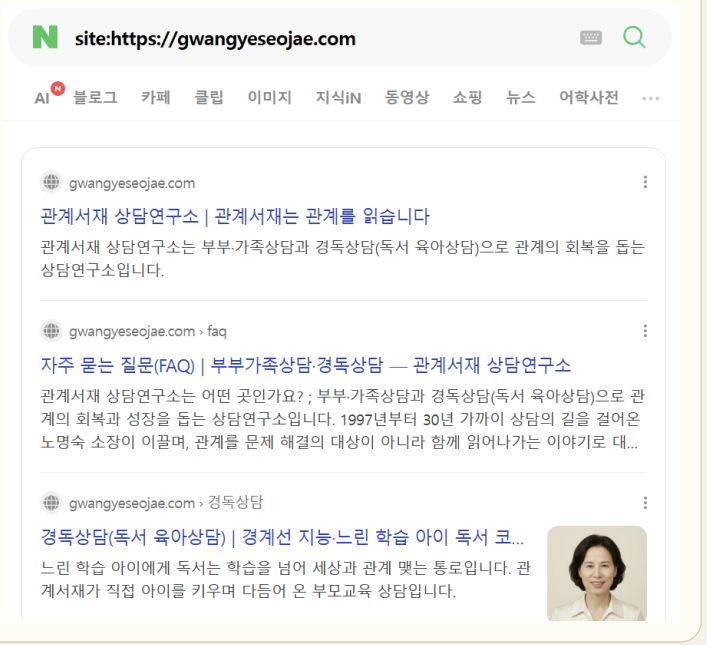
17일 뒤의 검색 결과

8월 12일, 구글과 네이버 모두 첫 화면과 여러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구글



네이버



같은 날 구글 서치콘솔

검색에 등록된 페이지 4개, 아직 등록되지 않은 페이지 5개.

한꺼번에 다 등록되지 않고, 조금씩 늘어납니다.

3. 검색

검색엔진에게 알린 방법

용어가 낯설어서 제 식으로 풀었습니다. 모두 Claude에게 부탁해서 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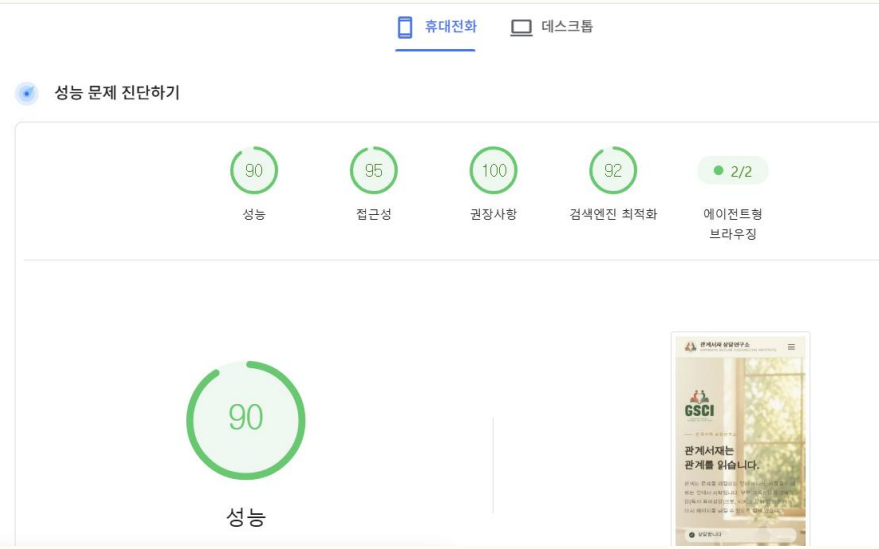
한 일	쉽게 말하면
sitemap.xml	모든 페이지 주소를 적은 지도. 새 페이지마다 한 줄 추가
제목과 설명	검색 결과에 보이는 파란 제목과 그 아래 소개글
공유 미리보기(OG)	카카오톡에 주소를 붙이면 뜨는 그림과 제목
구조화 데이터	"이 페이지는 행사 안내, 참가비는 무료"라고 알려 주는 설명표
서치콘솔, 서치어드바이저	구글과 네이버에 "제 홈페이지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창구

4.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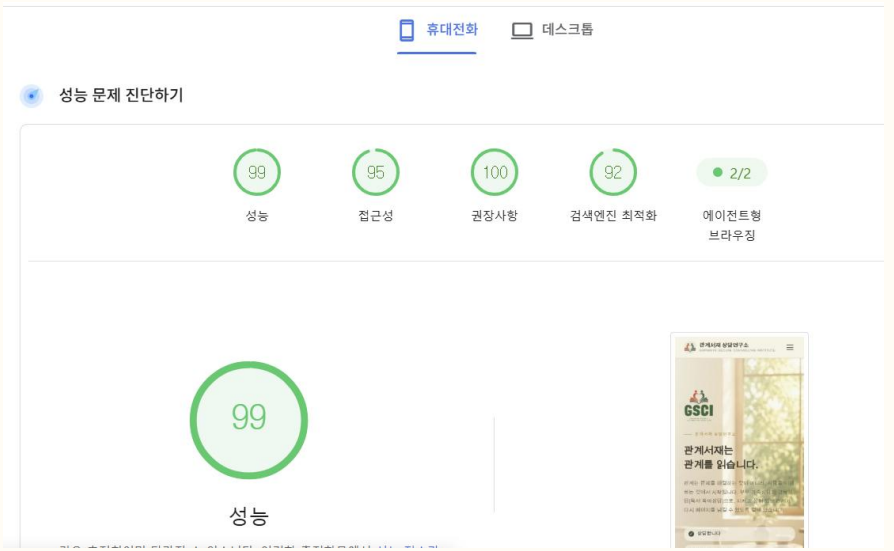
PageSpeed Insights 건강검진

"사진이 무겁다"는 지적을 받고 사진을 가벼운 형식(WebP)으로 바꿨습니다. 12분 뒤 성능 90점이 99점이 되었습니다.

고치기 전: 성능 9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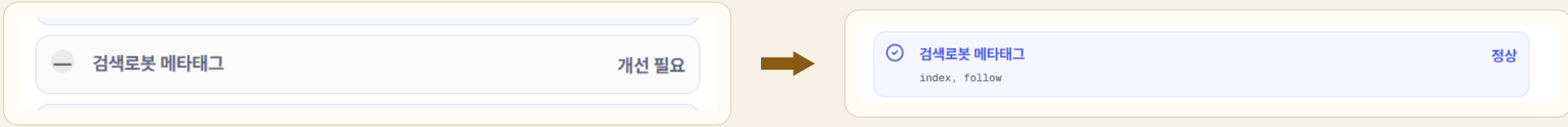
고친 뒤: 성능 99점



점수 변화와 검색로봇 태그

잰 날	성능	접근성	권장사항	검색 최적화
7월 27일, 처음 올린 직후	91	95	100	100
8월 12일, 고치기 전	90	95	100	92
8월 12일, 고친 뒤	99	95	100	92
10월 1일 [기준 확인]	98	95	100	92

10월 1일, GEO LAB 검사에서 "검색로봇 메타태그 개선 필요" 지적을 받았습니다. HTML 파일 17개에 한 줄씩 넣어 "정상"이 되었습니다.



5. 운영

새 소식은 새 페이지로

주소가 따로 있어야 검색에 따로 걸리고, 그 페이지만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새 페이지를 만든다.
2. 공지사항 목록에 한 줄을 추가한다.
3. 페이지 지도(sitemap)에 주소를 넣는다.
4. Cloudflare에 올리고 배포한다.
5. 구글과 네이버에 새 주소를 알린다.

1~3번은 Claude가, 4~5번은 제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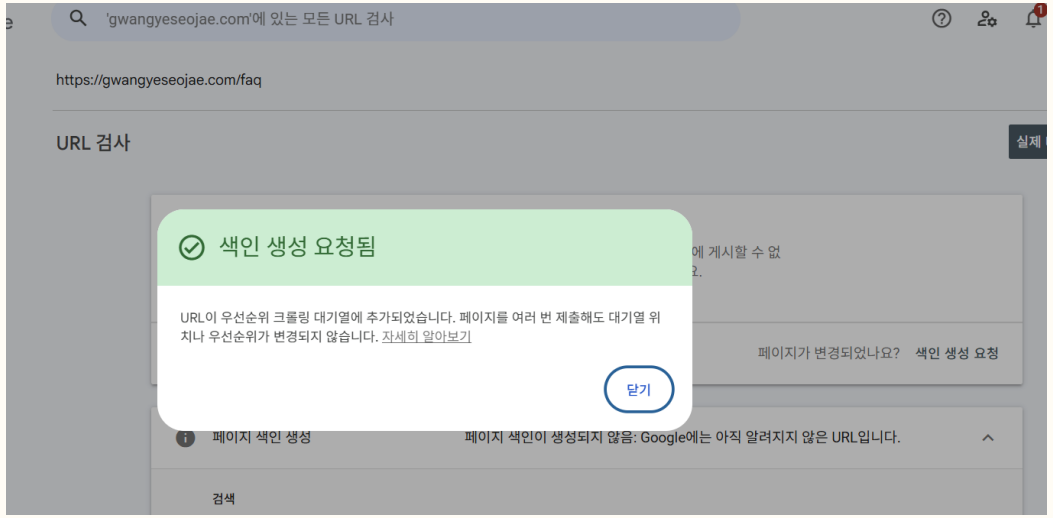


5. 운영

구글과 네이버에 새 주소 알리기

검색엔진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새 주소를 먼저 알립니다.

구글 서치콘솔: 색인 생성 요청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웹 페이지 수집 요청



6. 막혔던 순간

45분짜리 영상 올리기

> 첫 번째 벽: 파일이 너무 큽니다
>
> 파일 하나에 25MB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영상은 약 125MB였습니다. 영상을 76조각으로 잘라 올렸습니다.

> 두 번째 벽: 배포가 막혔습니다
>
> 조각 파일 이름이 .ts로 끝나서 프로그램 코드 파일로 잘못 알아본 것입니다. 다른 형식(.m4s)으로 다시 만들어 해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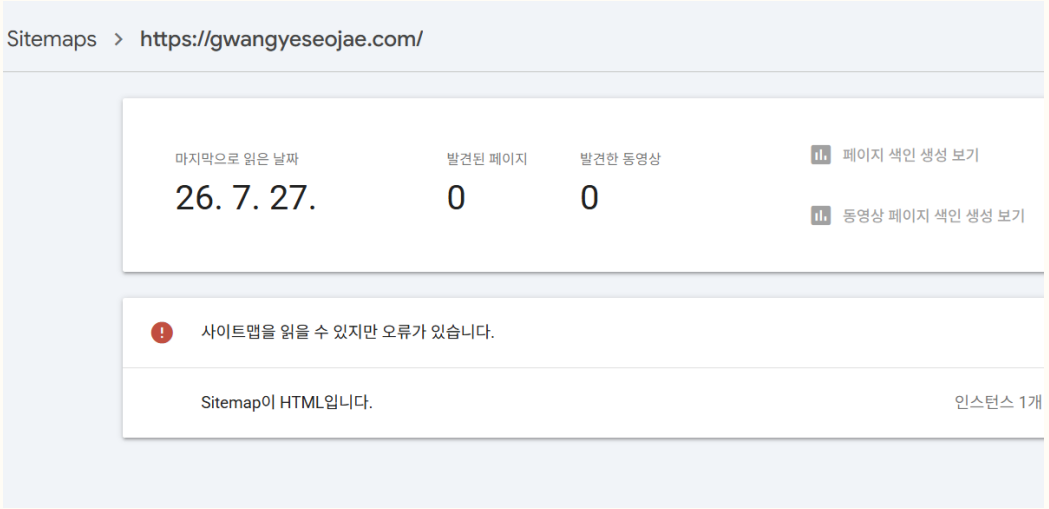


6. 막혔던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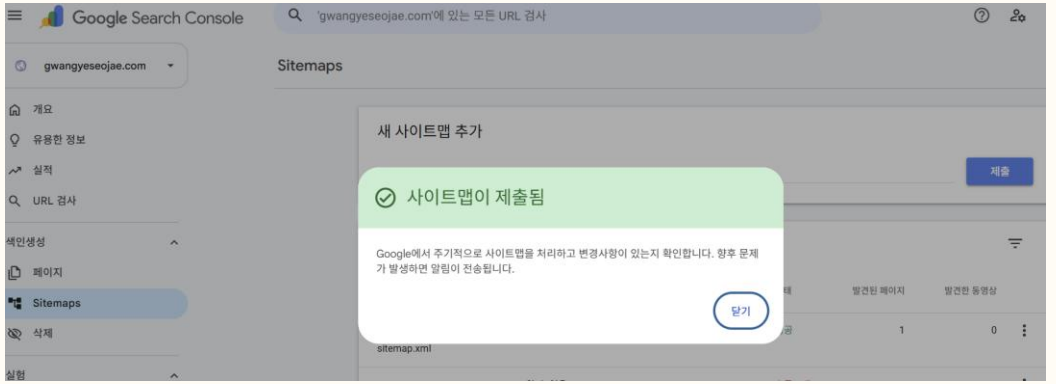
첫날의 사이트맵 오류

7월 27일 새벽, 구글 서치콘솔이 오류를 냈습니다. 폴더에 사이트맵 파일이 없었습니다. 파일을 만들어 다시 배포하니, 그날 저녁 "제출됨"이 떴습니다.

새벽: 오류



저녁: 제출됨



마무리

배운 점 네 가지

하나

코딩을 몰라도 됩니다

대신 '무엇을 원하는지'는 제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30년 가까운 상담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둘

만들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주소 사기, 올리기, 검색 확인, 점검, 새 글 올리기가 뒤따릅니다.

셋

확인은 직접 해 봅니다

site: 검색과 PageSpeed Insights는 무료입니다. 결과를 Claude에게 그대로 보여 주면 됩니다.

넷

반복하는 일은 메모합니다

공지 올리는 순서, 영상 올리는 방법을 적어 두니 일이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계획: GEO-STUDY-24 Bukketlab.com 충분히 활용해보기

Google Analytics 등록

gwangyeseojae.com

노명숙 · 관계서재 상담연구소